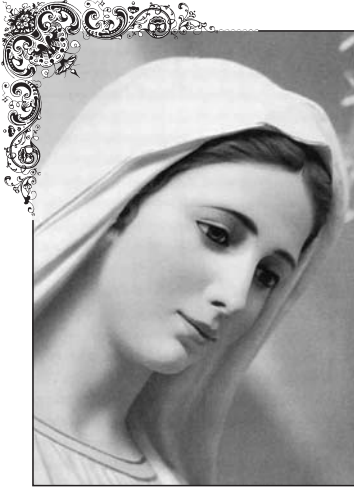




The Queen of Peace

평화의 모후

2010, December / 제59호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바라보며 희망과 쉽도 없이 허기진 너희의 마음에서 죽음을 목격한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께 의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가 너희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너희 자신을 열어라. 너희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의 자비에 열어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평화이고 너희의 희망이시기에, 너희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0년 11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오복음 1: 21.)

2010년 한 해동안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모님이 주시는 평화와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1년 새해에도 '평화의 모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고 평화와 기쁨을 나누는
성모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남 홍익 그레고리오
지도 신부: 박 창득 어거스틴 문시놀
신 경남 스테파노 신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님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제 두아들에게 성소가 있기를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을 앞 둔 000의 가정에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가족의 평화와 손주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성모님, 양쪽 눈의 백내장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성모님, 딸아이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연옥 영혼과 죄없이 희생된 태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세 아들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제되기를 지향드립니다.
- 예수님, 불법이 된 저희 가족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예수님, 다리를 다친 동생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오랫동안 쉬고 있는 세실리아와 베드로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00가 이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성모님, 저희 부부, 남은 여생을 근심 걱정 없이 살수 있도록 기도해주소서.
- 남편의 회개와 부부의 사랑과 화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성모님, 저희 가족들을 봉헌하오니 모든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소서.
- 성모님, 00언니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모님께 감사드리오며 더 큰 사랑과 인내를 주소서.
- 생일을 맞는 00를 성모님께 봉헌하오니 세상의 오류와 악에서 보호해주소서.
-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한 저희들과 집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00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성모님께 청합니다.
- 성모님, 군대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00에게 건강의 축복과 평화를 기도해주세요.
- 성모님,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 주세요.
- 영적으로 입양한 태아들의 생명과 000와 000의 보호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000의 내적치유, 000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착하고 소심한 성격의 사위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예수님, 남편 000의 신장병 쾌유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소서.
- 000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성모님, 딸에게 직장을 주시고, 제가 2011년에 메주고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000가 믿음있고 성실한 동반자를 만나 성가정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 가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00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건강과 새로운 삶의 지혜를 주세요.
- 세상을 떠난 연옥 영혼들과 기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12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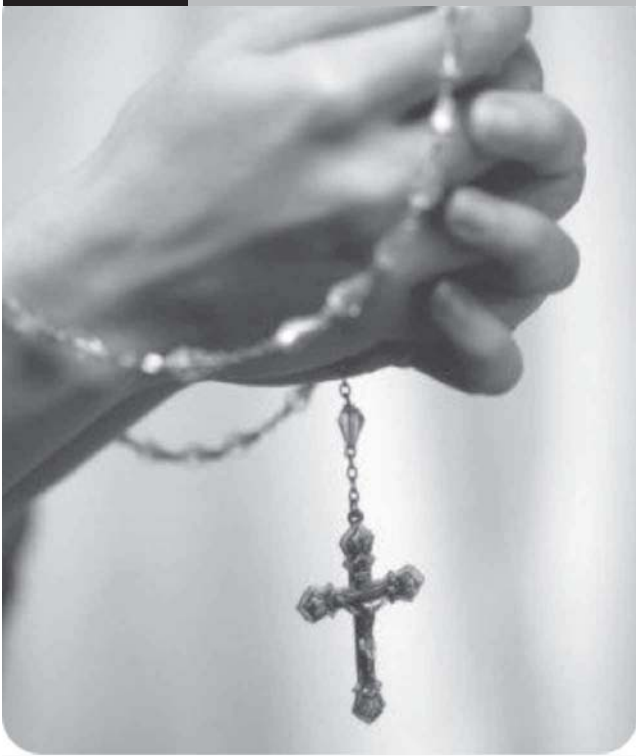


1.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는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 아래 제이천년기에 차츰 그 모습을 갖추었으며 많은 성인들의 사랑을 받고 교도권이 권장해 온 기도입니다. 단순하지만 심오

한 이 기도는 커다란 효과를 지닌 기도로서 이제 막 시작된 제삼천년기에도 성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 신앙의 영적인 여정에 잘 어울립니다. 그 신앙은 이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본래의 힘을 조금도 잃지 않고, 하느님 영의 인도로 "깊은 데로 가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묵주기도는 분명히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그 소박한 구조 속에 모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으므로 마치 복음의 요약과 같습니다. 묵주기도는 또한 당신 동정녀의 품에서 시작된 강생의 구원 활동을 두고 바치신 바로 성모님의 기도이며 성모님의 영원한 노래인 마니피캇을 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묵주기도를 통하여 성모님의 학교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황들과 묵주기도

2. 저의 많은 선임자들께서도 이 기도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묵주기도는 어릴 때부터 저의 영성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최근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특히 칼바리아 순례지에서 이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언제나 묵주기도를 바쳐 왔습니다. 저의 모든 근심을 묵주기도에 의탁하였으며, 그 안에서 저는 언제나 커다란 위안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인 1978년 10월 29일에, 제가 베드로 좌에 선출된 지 두 주도 채 안되어 제 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묵주기도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 단순함과 심오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모송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이 영혼의 눈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사건들이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의 요약 안에 모아지고, 우리는 이를테면 성모님의 마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과 생생하게 결합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온 인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웃들, 특히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마음에 담고 묵주기도 한단 한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묵주기도는 인생의 그러한 맥



마리아 공경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이끄는 신심입니다.

박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말씀으로 저의 교황직 첫 해를 묵주기도의 일상 주기에 맞추었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 후계자의 직무 25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하고자 하며, 저의 베드로 직무를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 드립니다. 모두 임의 것!(Totus Tuus!)

3. 이러한 까닭에, 저는 대회년 경축을 마치며 하느님 백성에게 "그리스도에게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권고하였던 교황 교서 「새 천년기」"의 묵상에 이어, 마치 그 교서에 성모님의 화관을 두르듯이, 묵주기도에 관한 묵상을 풀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과 일치하여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권고하려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개인적 관

상과 하느님 백성의 교육뿐 아니라 새로운 복음화를 위하여 날마다 영성 훈련의 풍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4.…먼저, 묵주기도가 맞고 있는 일종의 위기에 시급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묵주기도는 오늘날의 역사적 신학적 상황에서 그 가치가 부당하게 평가 절하되어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가르쳐지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적절히 강조하였던 전례의 중심성은 필연적으로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축소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우리를 전례로 훌륭하게 이끌어 주는 동시에 전례를 충실하게 반영하므로, 전례에 내적으로 충만히 참여하게 하고 일상 생활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묵주기도가 그 분명한 마리아 성격 때문에 일치 운동과 어긋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분명히 묵주기도는 천주의 성모님께 대한 공경의 전망 안에 자리잡아야 합니다. 공의회가 분명히 밝혔듯이 마리아 공경은 "어머니께서 존경을 받으실 때에 그 아드님께서… 바르게 이해되시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도록"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이끄는 신심입니다. 묵주기도를 바르게 활성화시킨다면, 묵주기도는 교회 일치 운동에 분명히 도움이 되며, 결코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상의 길

5. 그러나 묵주기도 생활을 힘껏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교황 교서 「새 천년기」에서 참된 "성덕의 훈련"으로 제시하였던,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상하는 저 임무를 도와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덕의 훈련에는 "기도가 앞서는 그리스도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영성의 요구가 현대 사회의 수많은 모순 속에서 흐려지기는 하지만, 다른 종교들의 영향 때문에도 영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솟아 오르고 있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참된 기도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묵주기도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생겨나 발전한 이 기도는 전형적인 묵상기도이며, 어느 정도는 동방 그리스도교의 토양에서 피어난 '마음 기도'나 '예수님 기도'에 해당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의 모든 근심을 묵주기도에 의탁하였으며, 그 안에서 저는 언제나 커다란 위안을 얻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6. 지금의 역사적 상황이 묵주기도의 부흥에 커다란 효과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께 평화의 은총을 간청하여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 교황들과 저 자신이 묵주기도는 평화를 위한 기도라고 거듭 거듭 밝혔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의 저 가공할 재앙으로 시작되고 거의 날마다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폭력과 유혈 사태를 목격하는 이 천년기의 벽두에, 묵주기도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상하는 일에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 가정은 이념과 실제에서 날마다 점점 더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 시대의 필수적 근본 제도인 가정의 미래는 물론 사회 전체의 운명이 위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정 사목이라는 폭넓은 영역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묵주기도를 되살린다면, 파멸로 치닫는 이 시대의 위기를 막아내는 데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요한 19,27)

7. 수많은 표징이 가리켜 주듯이, 오늘날에도 지극히 기록하신 동정녀께서는 바로 이 묵주기도를 통하여 어머니로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자 하십니다. 구세주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를 가리키며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6) 하고 말씀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자녀를 당신 어머니의 보호에 맡기셨습니다. ... 저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교회 권위의 인정을 받은 루르드와 파티마의 발현을 그 이름을 들어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들 순례지에는 위안과 희망을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제 1 장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

9.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생명의 신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 늘 새롭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바로 성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2고린 3,18).

관상의 모범이신 성모님

10. 그리스도 관상에서 성모님께서서는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탁월한 모범을 보여 주십니다. 성자의 얼굴은 특별히 성모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그 누구도 성모님만큼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성모님의 마음의 눈은 주님의 탄생 예고를 받아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에 성모님께서서는 그분의 현존을 느끼시고 그분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히시며"(루가 2,7) 성모님께서서는 당신 육신의 눈으로 아드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언제나 흠숭과 경탄에 가득 찬 성모님의 눈길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시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루가 2,48)고 하셨을 때처럼 물어보는 눈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처럼(요한 2,5)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더욱이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깨닫고 그 뜻을 내다볼 수 있는 꿰뚫어 보는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 그 눈길은 특히 십자가 아래에서처럼 슬픔의 눈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모로 산고를 겪는 어머니의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외아드님의 수



구세주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교회의 모든 자녀를 당신 어머니의 보호에 맡기셨습니다. (요한 19,26)

난과 죽음에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드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진정한 새 아들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9,26-27).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는 부활의 기쁨에 빛나는 눈길이었을 것이고, 마침내 오순절에는 성령을 넘치도록 받아 불타는 눈길이었을 것입니다(사도 1,14).

성모님의 기억

11. 성모님께서서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시며,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든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루가 2,19; 2,51). 성모님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기억은 모든 일에서 언제나 성모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당신 아드님 곁에서 보내신 삶의 여러 순간들을 묵상하게 하였습니다. 그 기억들은 어느 모로 성모님께서 지상에 사시는 동안 몸소 끊임없이 바치셨던 '묵주기도'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천상 예루살렘의 기쁜 노래들 가운데 성모님께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는 연유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연유들 때문에 성모님께서서는 지금도 순례하는 교회에 어머니로서 관심을 가지시며, 교회 안에서 복음 선포자로서 당신의 선포 여정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신자들에게 당신 아드님의 '신비'를 끊임없이 보여 주시며, 그 신비의 관상으로 그 모든 구원의 힘이 발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의 기억과 또 그 눈길과 일치하게 됩니다.

관상 기도인 묵주기도

12. 바로 성모님의 체험에서 시작된 묵주기도는 더 없이 훌륭한 관상 기도입니다. 이러한 관상의 차원이 없으면 묵주기도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져 기도문만을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는 줄 안다.'(마태 6,7)고 하신 예수님의 권고를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운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님의 마

음과 눈길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생애의 신비를 더 쉽게 묵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신비의 헤아릴 길 없는 부요가 드러나게 됩니다. 묵주기도가 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관상 기도라는 그 고유한 본질을 더 잘 드러내 주는 몇몇 측면들을 밝히자면, 교황 바오로 6세의 이 드높은 생각을 잠시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13. 성모님의 관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이라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은 하느님께서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현존하게 합니다. 성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이르는 구원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충만은 특히 거룩한 전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수세기 전에 이룩하신 일들은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은총의 선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사랑으로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경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로 우리에게 얻어 주신 은총에 자신을 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또한 자기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며(마태 6,6), 더욱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1테살 5,17).는 것 또한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고유한 특성으로 묵주기도는 "끊임없이" 바치는 수많은 기도의 정점에 자리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인 전례가 모든 것에 앞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행위라면,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관상입니다. 묵주기도는 구세주의 삶의 신비들에 잠겨, 그분께서 하신 일과 전례가 재현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 삶에 동화시켜 줍니다.

묵주기도 한단 한단을 성모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은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그분의 복음을 배우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성모님께 그리스도를 배우기

14.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뛰어난 스승이시며, 계시하시는 분이시자 계시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모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 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진리로 이끄시는 내적 스승이십니다(요한 14,26; 15,26; 16,13).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에서 성모님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으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더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르실 때 분명히 스승의 모습으로 드러나십니다(요한 2,5). 또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시며 최초의 사도 파견에서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셨을 때에도 스승의 역할을 하셨다고 마음으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 한단 한단을 성모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은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그분의 복음을 배우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성모님께서 친히 학교를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풍부히 얻어 주시며 그 누구에게도 비길 수 없는 스승으로서 신앙의 나그넷길에서 모범으로 가르치신다고 여길 때에, 이 성모님의 학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자의 신비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당신께서 주님 탄생 예고 때 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질문을 하고 언제나 신앙의 순종으로 대답을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가 1,38).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닦기

15. ...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묵주기도의 영적 여정에서, 그리스도께 동화되려는 이 목표는 이른바 "우정"의 길을 통하여 추구됩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 그분의 감각으로 "숨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르톨로 롱고 복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치 두 친구가 자주 함께 만나면 흔히 그 습관이 서로 동화되듯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고 동정녀와 함께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묵상하며 영성체를 통하여 하나의 삶을 이룬다면, 비천한 우리도 그분들을 닦을 수 있고, 그 탁월한 모범으로 겸허하고 가난하며 드러나지 않고 인내하는 완덕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동화되어 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맨 먼저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보호에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참으로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로서 교회에 속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신비체에 끊임없이 자녀들을 "낳아"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리시기를 간청하는 당신의 기도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교회 모성의 완전한 표상이십니다. 묵주기도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자렛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적 성장을 보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성모님 곁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이렇게 하여 성모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형성"되실(갈라 4,19) 때까지 예수님께 기울었던 것과 같은 관심으로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육하십니다. 성모님의 이러한 역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역할에 철저히 종속되는 것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져 기도문만을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으로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 줍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밝힌 이 훌륭한 원칙을 저도 제 자신의 삶에서 강렬하게 체험하였고 이는 "모두 임의 것"(Totus Tuus)이라는 말씀을 제 주교 문장의 바탕으로 삼은 까닭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성인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모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완덕은 예수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결합되며 봉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신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결합되어 우리를 그분께 더욱 완전하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므로, 모든 신심 가운데에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께 바쳐 주님과 동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영혼을 봉헌하면 할수록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가 묵주기도에서만큼 깊이 결합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께 기도하기

16.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마태 7,7) 하고 말씀하시며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하느님께 매달리라고 권고하셨습니다. ...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며"(로마 8,26), 때로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뒷받침하시며 당신의 자애로운 전구를 통하여 개입하십니다. "성모님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를 떠받쳐 줍니다." <http://222.109.34.30/pds/vatican/pope/johnpaul2/rosarium/rosarium.htm> - 23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길이사라면, 그리스도의 가장 뚜렷한 모상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 주십니다. "성모님께서 성령의 활동에 유일하게 협력하신 사실을 토대로,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에서 드러난 그분의 위격에 초점을 맞

춰 기록하신 하느님의 어머니께 바치는 기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http://222.109.34.30/pds/vatican/pope/johnpaul2/rosarium/rosarium.htm> - 24 복음 말씀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요한 2,3)고 하시며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 주시는 장면에서 성모님의 전구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묵상이며 간청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어머니의 전구가 당신 아드님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얻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 이는 복음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인 백성의 경험 안에서 더욱 확고해진 확신입니다. 뛰어난 시인 단테는 베르나르도 성인의 말씀을 빌려 이를 훌륭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힘있는 여인이여, 누구나 은총을 바라지만 당신께 달아들지 않는 자는 날개 없이 날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여인(루가 1,35) 마리아께 간청을 드릴 때에, 성모님께서서는 당신께 은총을 가득히 주셨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시며, 또 당신 몸에서 태어나신 아드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여 주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17... 묵주기도는 또한 선포와 탐구의 길로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여러 차원의 그리스도인 체험에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그 특징은 기도와 관상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인 자신을 결합시켜 줍니다. 묵주기도는, 특히 본당과 순례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거행에서, 효과적인 묵상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결합될 때, 교리교육의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사목자들은 이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묵주기도의 성모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선포 활동을 하십니다. 묵주기도의 역사는 특히 이단의 확산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에 도미니코회 수도자들이 묵주기도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를 앞서 간 사람들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묵주기도에 의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묵주기도는 그 모든 힘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지금도 훌륭한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활용해 온 사목 도구로서 커다란 힘과

성모님께 영혼을 봉헌하면 할수록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를 '묵주기도의 해'로 선포하며 발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문헌으로서 가톨릭교회의 신앙 지침서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관상하고 복음의 핵심으로 인도해주는 주옥 같은 묵주기도의 은총을 독자들들과 함께 나누고자 연재 합니다. - 편집자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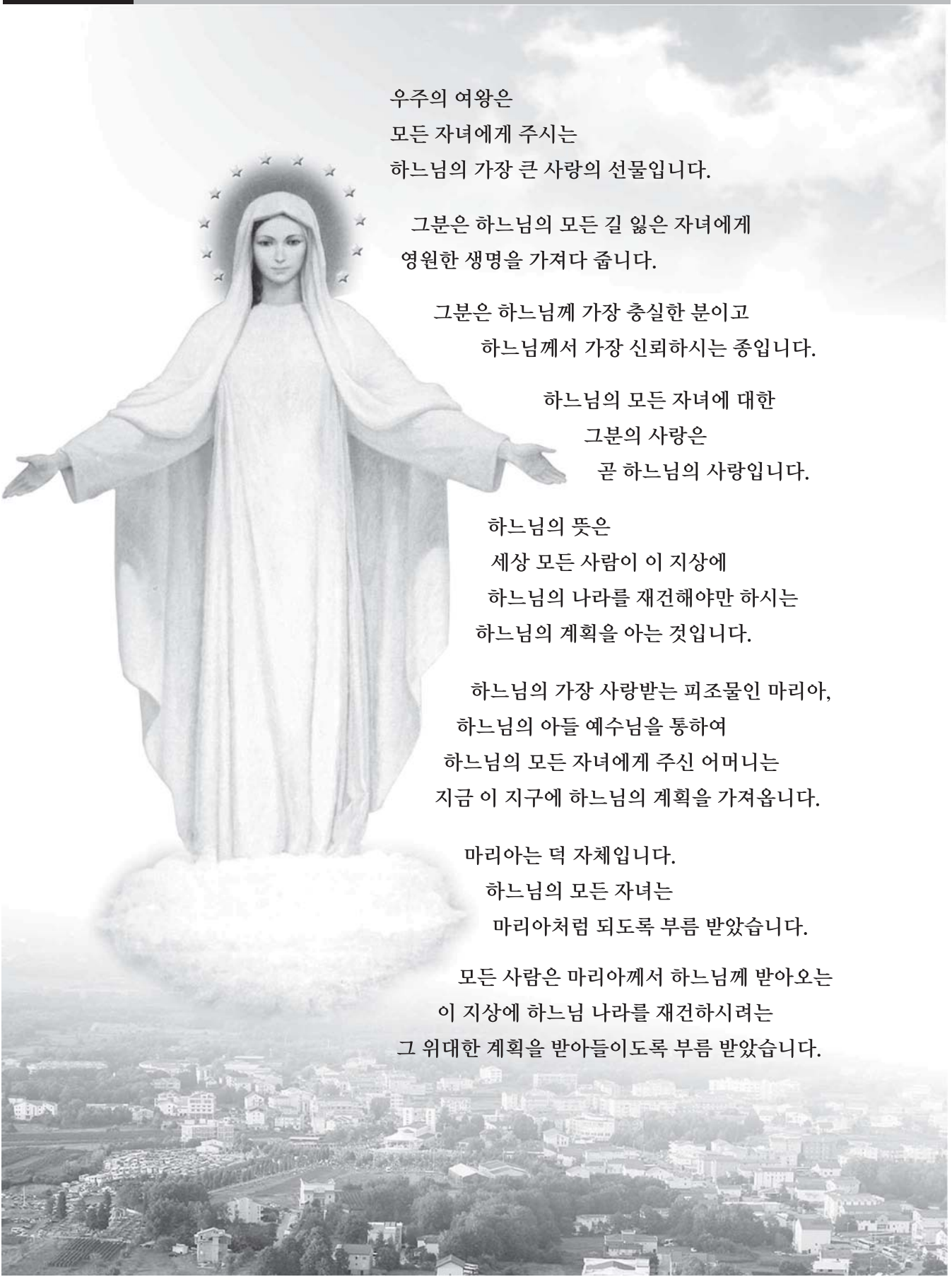
성모님께서 성 도미니꼬와 복자 알라노에게 주신 묵주기도의 약속

1. 내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자에게는 나의 특별한 보호와 수많은 은총을 약속한다.
2. 내 묵주기도에 항구한 자는 어떤 표시 있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3. 묵주기도는 지옥을 능히 쳐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며, 악을 쳐부시고 죄에서 구원하고, 이단을 물리칠 것이다.
4. 묵주기도는 덕과 선을 더욱 풍성케 하고, 영혼 안에 하느님의 가장 풍요한 은총을 내릴 것이며, 그 마음 안에 세상의 사랑 대신 하느님의 사랑을 심어다 줄 것이며, 그 영혼은 이로 인해 성화될 것이다.
5. 묵주기도를 드리며 나에게 달아드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6. 매 신비를 묵상하며, 나의 묵주기도를 경건하게 바치는 자는 불행에 묻히거나 죽을 때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죄인은 회개하고 의인은 은총에 더욱 성장하고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7. 나의 묵주기도에 진실로 헌신하는 자는 교회의 위로나 은총 없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8. 나의 묵주기도를 바치는 자는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에 하느님의 빛과 그 은총의 풍요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모든 성인들의 공로를 나누어 받을 것이다.
9. 나의 묵주기도에 열심했던 영혼이 연옥에 떨어지면 즉시 구해낼 것이다.
10. 나의 묵주기도의 진실한 자녀들은 천상에서 큰 영광을 누릴 것이다.
11. 나의 묵주기도를 통해 청하는 바는 무엇이나 다 들어 주겠다.
12. 나의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자는 모든 필요한 도움을 다 얻을 것이다.
13. 나는 내 아들로부터, 매교회 회원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천상의 성인들을 형제로 차지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14. 나의 묵주기도를 성실하게 바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
15. 나의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은 구원의 명확한 표시가 될 것이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및 성시간
일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묵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2-636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6 / e-mail : qpmmkr@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우주의 여왕은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모든 길 잃은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은 하느님께 가장 충실한 분이고
하느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종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곧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지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재건해야만 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가장 사랑받는 피조물인 마리아,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어머니는
지금 이 지구에 하느님의 계획을 가져옵니다.

마리아는 덕 자체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자녀는
마리아처럼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모든 사람은 마리아께서 하느님께 받아오는
이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재건하시려는
그 위대한 계획을 받아들일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애정 결핍으로 받은 상처의 치유

성모님 발현 29주년 기념
토미슬라브 이반치치 신부님의 치유 피정 (3)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 성호경은 너무나 단순하고 짧은 기도이지만 그 안에는 대단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되어 모든 죄와 두려움과 질병과 악에서 해방된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가슴에 십자성호를 하는 순간 내 영혼이 삼위일체에 계시는 하느님과 예수님, 성령과 일치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ㅇㅇ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란다! 네가 있어서 참 좋다."하시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마음으로 들어 보세요. "나는 늘 네 옆에 있었던단다! 너는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짧은 기도이지만 아름다운 이 기도의 힘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십자성호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천상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전제품들이 가득하다고 해도 전기라는 에너지와 연결되지 않아

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굳은 믿음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현실과 기억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행, 기쁨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의 두려움, 아픈 기억들, 양심을 속였던 죄, 폭력,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들과 슬픔과 상처받았던 모든 순간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인색함, 교만함, 정직하지 못한것, 분열, 게으름, 불신, 불륜, 의심, 우울함, 질병, 초조 불안을 치유해주세요." 여러분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마태.11장 28)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분의 십자가와 상처가 우리들을 치유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질병들을 모두 그분께 드리고 치유해달라고 청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굴욕감을 받았습니까? 당신을 무시하고 욕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고 평화로 가득하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말씀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알렐루야!"

상대방에게 원하는 회개를 내가 먼저 하면 그 사람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나를 사랑하고 기다려주시고 부둥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두 손으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느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 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 주셨을까... 여러분, 하느님의 그 사랑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해도 언제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 교황이신 라칭거 추기경님은 강의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나는 판단하고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우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악한 죄인이었던 그가 지금은 예수님의 자비를 증거할 때마다 늘 기억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순례자 여러분! 하느님은 용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모든 상처와 우울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용서해주면 먼저 여러분이 기뻐지고 행복해 집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아프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나쁜 짓을 하건, 착한 아이 이건, 엄마의 사랑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토록 크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넓겠습니까?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불치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귀중한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나후 저는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모든 죄를 알면서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께 저의 삶을 드릴 수 있습

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육간의 진정한 치유는 믿음으로 나를 내어 줄 때 받는 선물입니다.

낙태로 받은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낙태로 인한 상처는 여성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과 상담하면서 같은 고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여성들은 자식에 대한 모성 때문에 낙태후 겪는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처가 크고 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낙태 후의 상처와 초조, 번민,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엄마가, 아빠가 '지금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낙태를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해도 두려움과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초조와 불안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갑니다. 낙태를 한 엄마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없이 고해성사를 보아도 자신의 태중에 있던 아이를 죽인 죄의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로서 자신의 태중에서 죄없이 죽은 아이에 대한 죄의식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낙태한 부모들이 있다면,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의 그 고통을 어떻게 도와



줄겁니까? 저는 낙태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과 아기의 치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 하시기를 권합니다.

- 1) 죽은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 2)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00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미안하구나. 이 엄마, 아빠를 용서 해다오."
- 3) "사랑하는 00야. 우리는 너의 아빠 엄마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 4) "예수님,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하여 이 아이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의 기도와 참회, 사랑을 통해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있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용서한다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창조주께서 주신 이 아기의 수호 천사들과 여러분의 수호천사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식과 상처와 아픔, 고민과 불면증으로부터 치유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죽은 아기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되어 부모에게 버려져 죽임을 당한 상처가 치유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치유! 얼마나 아름다운 치유입니까! 알렐루야!

용서를 통한 치유

우리 주위에는 정신병, 우울증, 알콜, 마약, 불륜, 도박, 불안, 고통, 기타 중독증 등등의 심리적인 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중독자입니다. 남편은 계속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욕을 하고 게으릅니다. 고해 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등등...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치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성령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을까?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회개를 내가 먼저 하면 그 사람도 회개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먼저 술선수범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구원하여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시키고 싶은 사람,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을 먼저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해주세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 하세요. 용서는 서로의 이해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용서한다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의 아들은 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집을 나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 아들은 아직도 저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기도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의 치유

마약, 알콜, 게임 혹은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년 시절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시절에 애정결핍과 왕따를 당하고 굴욕감을 느낀 사람들은 자신의 고귀함이 짓밟혔다는 상처받은 감정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그 시기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 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에 지쳐 있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서 자신들이 잘못에 대한 회한으로 고통받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본 부모님들이 계시나요?

- 1)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란다."
- 2)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여러분, 그 말이 어린아이들 의식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로 뿌리내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라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쉽게 알콜 중독, 마약, 노름이나 게임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존



예수님, 이 분을 제 엄마로 모십니다.
성모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재를 부정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불신하고 안이함에 빠져버려서 능력을 개발시키지 못하고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자녀들의 상처는 부모들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들도 기도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짜증스러워하면서 스스로 무능력함에 빠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 사람때문에... 이 사람때문에... 때문이야, 때문이야... 이렇게 남의 탓만 하다가 회한이나 죄의식을 견디지 못하다 결국은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절대로 그분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이 네 어머니입니다. 이 분을 모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를 당신의 엄마로 받아들이

고 말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분을 나의 엄마로 모시겠습니다. 성모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삶 안에 계시기에... 당신이 계시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3일 동안의 피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치유받고 변화되어 구원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모종으로 심어 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M**

(이 기사는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29주년을 기념하여 야고보 본당의 주최로 진행된 3일 간의 치유 피정 중 둘째 날의 강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부 -)

(토미슬라브 이반치치 신부의 약력: 크로아티아 자가브리아 대교구 소속으로 1967년에 서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철학과 교회신학 박사, 현재 자가브리아 신학대학의 교수, 2002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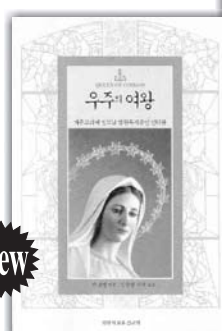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왜 성모님께서서는 지난 27 년동안 계속해서 메주고리에 발현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고자 하시나?
무엇을 부탁하시려는 것일까?



이 책에서 목격 중인 6명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슬라브코 신부는 인터뷰를 통해 진실하고 소박한 언어로 이 질문에 명백하게 대답해 준다.



메주고리에 치유의 음악과 성시간



-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보급
- 신경남 신부님의 체험담 '메주고리에의 부르심'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로 딸 및 성바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255. 1982년 12월 24일 /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세상은 깊은 적막에 싸여 있다. 어둠이 만상을 덮고 있는데, 기도와 기다림 속에 깨어 있는 마음들이 있다. 신뢰에 찬 하나의 희망이 증오와 이기심으로 닫혀 있는 문들을 연다. '지옥'의 권세와 사랑과 생명의 새로운 능력에 의해 뜻밖의 순간에 지고 말 것임을 감지하고 있다. 어둠 속의 한 줄기 서광이 밝아 온다. 감미로운 천상 음악의 선율이 고요속에 들려 온다. 그러자 하늘에 홀연 '큰 빛'이 나타난다. 거룩한 밤이다. 그 '큰 빛'이 이미 이 초라한 움막을 에워싸고 있고, 여기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동정인 어머니'가 너희에게 자신의 '아기'를 주는 것이다. '아기'는 가난하고 무방비 상태인 처지, 갖춰진 게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 추위로 떨면서, 또 어린 양처럼 울며 유순하게 탄생하셨지만, 그럼에도 '아기'의 조그만 몸이 운율과 자비의 큰 신비를 이미 환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밤 이래

로 모든 인간의 생명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갓 태어나신 '아기'가 만민의 '하느님'이신 까닭이다. 너희처럼 인간이지만,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즉 옛부터 예언되어 온 '임마누엘' (마태1,23: 이사7,14 참조) 이시니 말이다. 그분이 너희의 형제이다. 세상의 심장이다. 영원한 생명의 고동이며, 인간의 모든 고통에 대한 위로의 손길이고, 모든 패배를 초월하는 승리이다. 또한 이기심과 증오와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향유이고,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모든 이에게는 언제나 빛나는 등불이며, 이 방황하는 세상의 단 하나 뿐인 희망이다. 그러나 아직도 하느님을 배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수많은 문들이 닫히는 소리를 슬프게 들으면서, 이 어머니는 근심에 잠긴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거듭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오늘 '구

세주'께서 만민을 구하시려고 너희 가운데 탄생하셨다." 이 세상의 길을 다시 온통 뒤덮고 있는 엄청난 냉혹함으로 상처 입은 내 마음과, 지상을 온통 거대한 사막으로 만들어 버린 하느님께 대한 극심한 배척 때문에 비통해진 내 영혼은 이토록 엄청난 절망을 보면서 너희에게 거듭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특히 오늘날,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는 내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죽음의 독약을 쏟아 부으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이 괴로운 때를 살아내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무지 완화될 줄 모르는 이 슬픈 고통, 분쇄될 줄 모르는 이 무거운 죄의 노예 상태, 이미 개선하기 어렵도록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 끊임없는 전쟁 위기, 갈수록 무겁게 압박해오는 피비린내 나는 위협. 이 모든 것 앞에서, 이 '거룩한 밤'에, 티없는 내 성심이 만민에게 희망과 격려로 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느님의 말씀'이 약한 인성을 취하시어 처음으로 너희 가운데 오실 때, 나의 겸손한 동의를 쓰셨듯이, 지금도 내 아들 예수께서는 나의 예언적 메시지를 사용하신다. 영광에 싸여 두번째로 너희 가운데 오실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이다. 이토록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자녀

들이.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티없는 내 성심의 승리를 통해, 예수께서 '사랑'과 '평화'의 영광스러운 당신 왕국 안에서 너희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M**

(이 메시지는 다락방 기도회의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콤포비 신부님에게 1973년부터 1997년까지 파티마 성모님께서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미국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구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동이체 후원 : 신한은행
 구좌번호 : 100-021-159808
 연락처 : 권 레지나 010-3654-3521
 박안젤라 019-252-1387
 노마리노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간절한 기도 지향을 성모님께 전해 드립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중재 기도의 사명을 받은 발현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발현때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을 위하여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보내 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qpmmkr@gmail.com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신경남 스테파노

카푸친 작은 형제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2010년 10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
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회개
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싶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모든 성인들의 전
구를 청하여라. 그들이 너희에게 모범과 자
극이 되고, 너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기쁨이 되기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
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회개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라고 너
희를 부르고 싶다: 지난 8월 성모님께서
는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개인 기도의 때
가 되기를 바란다." 는 메시지를 주셨습니
다. 두 달이 지난 10월 25일, 성모님께서
는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
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같은 내용
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 달 걸려 다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만큼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그 메시지를 실
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
서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

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
한 그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눈길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모님
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
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지, 우리의 삶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상
태가 어떠한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위협에 처해
있는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머니
의 마음과 그분의 자비로운 눈길을 느
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때
가 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
명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느
님께 열게 만들어주는 열쇠이고, 기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
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나는 회
개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라고 너
희를 부르고 싶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시기에 왜 우리 자신을 위
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
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
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나? 그 이유
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25일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회개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싶다."고 말씀하신 성모님께서서는 11월 2일 마리아를 통해 주신 메시지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어머니의 끈기와 사랑으로, 너희 안에 있는 죽음의 어둠을 없애기 위해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나를 거부하지 마라. 멈추어 너희 자신을 들여다 보고, 너희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깨달아라. 너희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바쳐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자신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지만,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강하고 위대하게 될 수 있다. 깨끗해진 너희 마음을 내게 주면, 나는 생명의 빛이신 내 아드님이 그 마음을 밝혀 주시도록 할 것이다. 고맙다."

성모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멈추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멈추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안에 드리워진 죽음의 어둠을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가져다 주시는 성모님께 협력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의 죄스러움을 깨닫고, 그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며,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기도는 회개의 전제 조건이고, 고해성사는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모든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여라. 그들이 너희에게 모범과 자극이 되고, 너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기쁨이 되기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살다 지금은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항상 일치를 이루고 싶어 했기 때문에, 기도가 그들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늘 기도했고,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며, 하느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죄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깊은 참회와 기도를 통해 회개의

길을 걸었고, 겸손하게 하느님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강하고 위대하게 되었던 그들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천상 교회의 구성원이 된 성인들은 순례 중에 있는 지상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의 영적 형제자매로 존재하며, 우리의 구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바로 이 모든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위해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한 중재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모든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면서 그들의 전구를 청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수호 성인과 그 외 자신에게 친근한 혹은 알고 있는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 빌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혹은 마음으로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구를 하느님께 바쳐줄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족, 친구, 그 외 다른 협력자들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의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 천상의 성인들을 우리의 영적 가족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느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때임을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며 제가 얼마나 죄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이신 당신 아드님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하느님, 저의 모든 죄를 당신께 고백하며 당신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죄로 인해 제 안에 드리워진 죽음의 어둠을 없애 주소서.

성모님, 당신의 메시지대로 저 자신의 회개와 성화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겠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모후이신 성모님,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모범을 본받고, 저 또한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신과 또 모든 성인들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계속 이끌어 주소서. **M**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섯 개의 조약돌

· 로사리오 기도 · 성체성사 · 성경 · 단식 · 고해성사

저자 :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이 : 남기옥 마르타



질문 : 성모님께서 왜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요조신부 :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평화를 자리 잡게 하는 성전이라서 기도 없이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기도는 신적인 대화이며 은총이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생산해 내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요한 10,30) "아버지와 일치하려는 희망으로"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이며, 우리를 하느님 앞에 있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형상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요한 12,45) 이렇게 사람이 정화되면서 주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이가 되고 자신 안에서 그 모습을 실현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소유한 내적 마음의 문을 열고 보물을 향해 찾아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찾습니다. 기도으로써 모두 자비로워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존재를 변모시키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변화되고, 거룩하면서 회개시키고

빛을 발하게 합니다. 모든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이며 그 안에서 사람은 배부르고 만족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한 모든 만남이 사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창조적으로 만들며 바른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을 성모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이며 의탁과 용서, 화해의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면서 산다면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웃과 화해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는 신적인 은총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과 인식은 선물처럼, 은총의 행위와 주님을 향한 찬미로 성숙됩니다.

질문 : 로사리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를 선행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요?

요조신부 : 루르드와 파티마에서도 그랬고, 다른 발현지에서도 이 기도를 권고하셨고…… 기도가 진실하고 성령의 감도를 받았다면, 하느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가 지루한 반복성을 떨 수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반복하는 무의미한 기도가 되도록 허락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모송'을 새로운 은총, 새로운 선물, 새로운 표징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하느님의 형상을 바

고해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로사리오 기도가 지루하기 짝이 없는 반복되는 중얼거림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사리오 기도가 동정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로사리오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20개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봉헌하는 로사리오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질문 : 메주고리에가 그리스도인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조신부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성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정녀께서도 당신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분 메시지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전혀 각색되지 않은 교회일치운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힌두교, 회교와 동방정교, 개신교 신자들이 이곳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의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 소신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비판 없는 대화, 서로를 겨냥하지 않으면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정교 신자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그리스…… 등 여러 지역에서 찾아오는 동방정교 순례자들을 기쁘게 만나서 그들의 마음에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새기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담아 줄 수 있다면 언젠가 성모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여 울고 말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단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요조신부 : 그것은 발현 초기 중요한 메시지들 중의 하나



발현초기 목격증인들과 함께

인데 2001년 새로운 천년 기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단식은 내적인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절제하는 희생을 배울 때 내적인 자유를 체험하고 기쁨과 평화를 얻습니다. 단식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써 자신을 이기고 조절할 수 있도록 사물을 바라볼 때 깊이 숙고하고 협조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교회의 단식은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지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위대한 성인들은 단식을 통해서 기도와 영적인 성장, 성화 안에서 성숙을 도모하고 악에 대항할 힘을 보여 주신 분들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고해성사가 왜 중요하나요?

요조신부 : 죄는 악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죄는 인간이 자유 의지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악으

로써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그 속에 빠지면 혼자서 죄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께서 '네 죄들을 사한다.'고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제를 통한 하느님의 용서입니다. 사제는 성사이며 성체성사와 함께 우리가 받은 선물이고 표징입니다. 사람이지만 거룩한 사제의 길을 택했을 기름이 발라지고, 교회를 위한 선물로 봉헌되어 예수님의 활동을 지속시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요한 20,23)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을 들려줄 수 있는 타인들이 필요합니다. 사제는 자비하시고 선택하신 성부의 표시이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유로 축성하신 사제에게 잘못을 고해하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내적으로 이런 고해성사를 필요로 합니다. 사탄은 자주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고해성사? 필요 없어…… 창피하게…… 그 신부가 나를 어떻게 생각



기도는 모든 사람이 소유한 내적 마음의 문을 열고
보물을 향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라고?" 고해성사는 겸손이며 자신을 온전히 열어 보이는 것으로써 자신을 밝히는 것이 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제시하신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성부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쁘고 그들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해는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라자로와 (요한 11,1-44) 가난한 과부의 딸에게 일어난 일처럼 말입니다. (루카 7,11-17) 모든 고해성사는 부활이고 새로운 탄생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선하심,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의 성모님께서 이미 가톨릭 신자, 그리스도교인 젊은이들을 회개시키셨습니다. 과연 현대는 어떻게 누구를 회개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요조신부 :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아버지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말씀, 그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적인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돌 같이 굳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드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통과 이웃의 아픔 앞에서 신음하고, 순종하는 마

음은 그것을 듣고 크나큰 동정심과 착함과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가시밭에서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마태오 13,3-8; 마르코 8,4-15) 회개한다는 의미는 기름진 땅이 되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 10,4-5) 회개는 하느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룩함과 진리, 평화, 사랑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각자를 향한 소명이며,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고하를 막론하고 응답하도록 불렸습니다. 회개는 낡은 인간을 잊고 우리 안에 새로운 형상인 하느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종교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 하는? 혹은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면지, 정기적으로 메주고리예를 가야만 회개한다는 식이 아닙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거룩함을 향해 걷도록 불린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힘, 사랑이라는 도움으로 우리 자신이 오랫동안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M**



참 그리스도인이란 ...

(마더 데레사의 글에서 모음)

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받아 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받아 들임으로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참 열매가 맺는 가지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큰 것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빛이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분은 걸어 가야 할 분,
누려야 할 생명,
사랑해야 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어 세상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자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 할 수 있도록 그분은 죄만 빼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이심으로
우리 또한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전하십시오.
말로만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가는 곳마다
그분 사랑의 향기를 퍼트리면서 전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보존하고 그 것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 들이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어드리십시오.

그분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당신이 저를 산산조각 내신다하더라도
그 파편 하나하나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에 배고파 그분은 바라보십니다.
옷을 벗긴채 그분은 당신에게 희망하십니다.
병들고 갇힌 그분은 당신에게 우정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피난처가 없으신 그분은 당신에게 부탁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렵니까? ... 아멘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비와 은총이 넘쳐흐르는 거룩한 땅 메주고리예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회 소속인 필립 신부는 영어 미사를 봉헌하며, 영어권에서 오는 순례자를 위해 연락을 맡고 있다.

* * * * *

질문 : 신부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곳에 발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필립 신부 : 네, 확실히 믿습니다.

질문 : 어떻게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까?

필립 신부 : 처음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주의를 끈 것은 1981년 6월 24일이라는 첫 발현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요한 세레자의 대축일이며 바로 제 사제 서품일이었습니다!

질문 : 그것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필립 신부 : 1957년 바로 그 날은 제가 사제서품을 받은 날입니다. 요한 세레자는 제 사제직의 수호성인입니다. 저는 요한 세레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하시는 방법이 세레자 요한과 닮았습니다. 성모님께서 팔에 아기 예수님을 안으

시고, 발현목적증인들에게 그분을 보여 주셨고 동시에 그들을 그분께로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요한 세레자의 정신 속에 있는 평화와 믿음, 회개와 기도, 그리고 단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 일부러 그 날을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발현을 목격한 아이들이 그렇게 심오한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발현의 진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질문 : 성모님과 구약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니까?

필립 신부 :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요한 세레자가 어떻게 당신 자신에 관해 '바로잡는 사람'이며 당신을 '계시하는 사람'인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께서서는 교회를 바로잡아 다시 세우시고, 자주 말씀하시듯이 사람들이 당신 아드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그분을 섬기기를 열망하게 하려고 오십니다.

질문 : 신부님은 어떻게 메주고리예에 오게 되었습니까?

필립 신부 :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옥상에서 갈릴레아 바다를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서는 이곳의 목자이시며 주입신

부어줍니다. 이곳은 호수 이편에서 저편까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던 본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아무도 여기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메주고리예로 가고 있다."

질문 : 신부님이 메주고리예에 가고 싶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입니까?

필립 신부 : 1984년 10월, 저는 6000명의 사제들과 함께 피정을 하러 로마에 갔습니다. 그곳 아일랜드 서부 골웨이에서 온 아일랜드계 프란치스코회 테스몬드 오말리 신부님이 약 150명의 사제들과 함께 로마에서 메주고리예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메주고리예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크로아티아 이민자이며 이미 프란치스코회 소속 사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몬드 신부님에게 가능하면, 발현목적증인을 통해 성모님께서 제가 메주고리예에 와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여쭙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질문 : 테스몬드 신부님이 신부님을 위해 발현목적증인 중 하나에게 물어 보았습니까?

필립 신부 : 네, 놀랍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반을 통해 주신 응답을 테스몬드 신부님이 몇 개월 후에야 보내 주었습니다. 영어는 엉망이었지만, 그 답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가 뜻이 있으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를 도우러 오게 될 것이다."

질문 : 그렇게 해서 메주고리예로 옮겨오게 되었군요?

필립 신부 : 네,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 결국 성모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 주셔서 제가 메주고리예에서 봉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곳 프란치스코 관구에 합류해서 이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영원히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 신부님, 가끔 이스라엘 성지가 그림기도 합니까?

필립 신부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마치 그 성지에서 또 다른 성지로 부름 받은 것만 같습니다. 메주고리예는 훌륭한 신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며, 위치 자체로도 '지리적으로 거룩한 땅'입니다. 메주고리예라는 지명은 '산과 산 사이'라는 뜻으로,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을 통해 메주고리예에 새롭고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성당' 같은 의미 말입니다. 성야고보 성당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이 성당은 발현 '산과 십자가' '산'에서 생명을 받고, 앞으로 나가갑니다. 저에게 이 두 산은 성부와 성자의 업적을, 참다운 '거룩한'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질문 : 그 두 산이 순례자들의 주요 목적지이겠군요.

필립 신부 : 그렇습니다. 메주고리예를 찾아 오는 순례자들은 늘 발현산에 갑니다. 발현산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그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장소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순례자들은 늘 십자가산을 오릅니다. 그 산에 있는 십자가는 메주고리예의 핵심적 상징입니다. 1993년 메주고리예 본당 신자들이 세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업적을 보여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 어머니에게 이끌어 주시어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신비이며 '성자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성야고보 성당은 '성령의 업적'을 상징합니다. 마리아께서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시고 어머니로서 돌보아 주십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동반자로서 이 세 장소에 다 계십니다. 저에게 메주고리예는 진정으로 거룩하고 신비로운 땅이며, 자비와 은총이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곳입니다. 메주고리예는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거룩하신 하느님과,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하나가 되도록 묶어 주는 곳입니다. **M**

이 기사는 '우주의 여왕'에서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성모님의 일기장

발현 목격자 비츠카(8)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역자 : 신경남 신부



순례자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비츠카

질문 : 비츠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비츠카 :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질문 : 어떻게 말입니까?

비츠카 : 죄는 우리의 평화와 기쁨을 파괴하고 슬퍼지거나 화가 나게 합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한다는 것은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더 착하게 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질문 :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해야 합니까?

비츠카 : 그 약속은 꼭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보러 갈 때는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반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숨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질문 : 고해성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츠카 : 말로는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더욱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 : 성모님이 왜 성야고보 본당을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비츠카 : 네,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질문 : 모든 사건이 의미가 있습니까?

비츠카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진짜 이름은 비다(Vida)이며, '생명(삶)'이란 뜻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제게 당신 생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도움으로 그것을 쓰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제게 그 책의 제목은 '생명(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책이라고요?

비츠카 : 네, 저는 세 권의 성모님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언제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질문 : 이름이 하느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암시를 준다는 말입니까?

비츠카 : 네, 제 이름 비츠카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반카와 이반은 요한이란 뜻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바로 요한 세례자 대축일에 이곳 메주고리에 처음 발현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는 구세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미리야나는 모두 성모님의 이름인 마리아란 뜻이고, 야콥은 야고보란 뜻입니다. 이곳은 성 야고보 본당입니다.

질문 : 우리 이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압니까?

비츠카 : 네, 성모님 말씀이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지구상의 당신 자녀들 하나 하나를 이미 알고 계셨으며, 또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 우리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까?

비츠카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이름을 지어 주도록 은총을 주십니다.

질문 : 당신이 발현목격증인이 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비츠카 :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

님의 계획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각자에 대해 계획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우리를 완전히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특정한 세기와 우리의 국적, 가족, 성별, 장점과 약점 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됴됨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질문 : 세상에 우연의 일치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비츠카 : 신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큰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통해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질문 : 당신은 성덕이 아주 간단한 것처럼 말합니다!

비츠카 : 성덕이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오로지 하느님께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발현 목격증인 이반 (1)



이반 드라기체비치는 1965년 5월 25일에 태어났다. 이반은 말이 없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와 거무스레한 얼굴 때문인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 젊은이들의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반은 스포츠, 특별히 프로 농구를 좋아한다. 현재는 결혼하여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아홉 가지의 비밀을 받은 그는 매일 성모님을 뵈고 있다.

* * * * *

질문 : 이반, 당신은 성모님의 발현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까?

이반 : 네, 그렇습니다.

질문 : 성모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표징은 당신이 살아 있을 때 나타납니까?

이반 : 네.

질문 : 영원한 표징이 나타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그 표징 때문에 하느님을 믿게 될까요?

이반 :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왜 메주고리에에 발현하시는 것입니까?

이반 : 성모님께서 이곳에 오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돌아오라고 하느님의 모든 자녀를 부르고 계십니다.

질문 :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반 :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입니다.

질문 : 이반, 당신은 1988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성모님께서 산 위에 발현하셨을 때 거기 있었습니까?

이반 : 네, 저는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질문 : 그때 발현에 대해 말해 주겠습니까?

이반 : 성모님께서 세 명의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고, 무척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산 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축일을 기념하려고 오기 위해, 고생한 것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질문 : 그날 발현에서 성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반 : 성모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를,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느님께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질문 :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반 : 제 생각에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요. 부모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한 가족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부모가 가장 잘



마리아와 함께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이반

입니다. 부모는 하느님에게서 자녀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질문 : 이반, 성모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반 :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온 세상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사람들은 핵전쟁에 대해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막기 위해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그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이반 : 사람들은 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반 :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철학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반 : 성모님께서서는 배움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배움이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반 : 성모님께서서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매력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는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반 :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치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 어떤 질병 말입니까?

이반 : 그 병은 물질만능주의입니다.

질문 : 물질만능주의가 왜 병입니까?

이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만능주의는 돈을 신으로 만듭니다. 돈이 신이 될 때, 당신 눈에는 돈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눈이 멀게 됩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반: 네, 이것이 성모님을 매우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 : 물질만능주의에서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반 :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르십시오.

질문 : 이반, 당신도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반 : 그렇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모든 사람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반 : 성모님께서 이곳 메주고리에뿐 아니라, 세상 곳곳에 기도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 왜 그러십니까?

이반 :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 모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질문 : 기도 모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반 : 긴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 없이는, 그 기도 모임은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속한 기도 모임의 지도자는 성모님이십니다. 저는 다만 성모님과 다른 회원들 사이에서 도와주는 협조자일 뿐입니다. 또한 기도 모임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단식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 당신의 기도 모임은 목표가 있습니까?

이반 : 네, 제가 속한 기도 모임의 목표는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성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살고, 다른 이들도 메시지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M**

이 기사는 6명의 메주고리에 발현목격증인 체험담인 『우주의 여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믿지않는 이들을 위해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을 얻어, 고통 당하시는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나는 여기서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분의 사랑, 선하심, 그리고 온유함을 통해, 나는 또한 너희와 함께 있다. 이 특별한 준비의 시기를 기도와 보속 그리고 회개의 시간으로 만들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는 하느님이 필요하다. 내 아드님 없이 너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너희가 이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 실현될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하늘 나라가 너희 마음 안에 태어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있다. 고맙다"

2010년 12월 2일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에게 주신 메시지

"와서 보십시오!"



파올로 감비 (이태리 언론인)



저는 최근에 3일동안 메주고리에 방문하였는데 언론인으로서 전에는 한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무력감을 맛보았습니다. 기자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내가 나누고 싶은 무언가를 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지요. 제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메주고리를 방문한 이후 제 심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메주고리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미 열 다섯번이나 다녀왔고 메주고리에 관한 책을 공동으로 쓰기도 한 친구에게 끌려 냉소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메주고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자동차 여행 내내,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을 저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열심히 이야기하는 친구의 말들을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지금 딱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메주고리에 가서 느꼈고 지금 제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로 표현한다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가기 전에 저는 성모님께서 그 보잘것 없는 곳에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발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고, 더우기 마리아께서 인류가 직면한 시련에 관한 몇가지 비밀들을 말씀하시기 위해 발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이성적으로는 그 사실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순전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메주고리를 생각한다면 그곳은 너무도 비논리적인 곳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성의 왕국을 떠나 마음의 제국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 공동체인 엘비라 수녀님의 공동체도 방문하고, 두 눈 가득 성모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미카엘 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손본 추기경과 파울로 감비

실야라는 마을 사람도 만났습니다. 코넬리아 수녀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고아원에 갔을 때는 그 수녀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삶에 관한 일종의 신비적 예언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였는데 정말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그곳 성당에서 기도를 하면서는 이유없이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제 평생 두번째로 그렇게 울었는데, 첫번째는 성령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런데 메주고리에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의미있는, 성모님께서 부터 온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발현 목격증인인 미리야나가 그녀의 작은 집 발코니에서 백여명에 이르는 사람 앞에서 전하는 그녀의 체험과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 중 몇마디는 마치 저에게 직접 하는 것처럼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제 마음속에 꽂히며 그간 무거운 짐처럼 저를 따라다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마도 저를 "감상주의자"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메주고리에 애호가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딱 꼬집어서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우연의 일치이거나 자기 암시, 아니면 스스로 감동하는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 그런 설명들이 그리 만족스런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메주고리를 생각한다면 그곳은 너무도 비논리적인 곳이지요

만일 당신이 제가했던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해 본다면 왜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인간 사고의 한계를 벗어난 신비스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발견" 이것이 바로 제가 체험한 메주고리에 순례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메주고리에에서 당신은 당신 마음 깊숙히 묻혀있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M**

(<http://thereedofgod.blogspot.com> 에서 발췌 및 번역하였습니다.
-편집실 주-)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 / 편집인: 남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약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선교학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관리자: 제임스 윤, 이 토마스

편집위원: 최미정, 이금희, 최윤비, 이연숙, 김성주, 남미자, 신소희

인쇄: 동방인쇄, 영인문화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5:5)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가족들을 지켜주는 천상의 보험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의 성가정을 본 받으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모님, 천상의 어머니, 당신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가족이 매일 당신이 기뻐하시는 묵주기도를 1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기도 체험담을 쓰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지난 소중한 날들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후 정신없이 지나온 날들이 벌써 큰아들이 22살, 큰딸이 18살, 둘째딸이 16살, 그리고 막내아들이 10살이 되었습니다. 빠른 세월 안에 네명의 아이들과 함께 보내었던 지난날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울던 시간들... 때로는 고민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던 시간들...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특별히 가족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행복의 시간, 사랑의 시간, 감사의 시간들로 바꾸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성모님 감사드립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모든 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 때부터 매일

가족 기도를 했으며 한달에 한번은 예수님과 성모님께 자신과 가정을 봉헌하는 기도회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저녁 식사 후로 하고 집안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 가족제대를 준비하고 십자가 고상과 성모님상, 성서, 성수, 묵주와 초를 준비했습니다. 큰아이가 7살, 둘째가 3살 반, 셋째가 1살 반인 어린아이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큰아들과 둘째 아이가 기도문을 한국말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자장이 대신 침대 곁에서 묵주기도를 하며 드리던 저녁기도를 듣고 자란 탓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한국말 기도문을 외워서 다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태중 구교 신자인 남편은 부모님의 묵주기도를 자장가처럼 듣고 잠이 들었던 유년의 아름다운 추억을 아이들에게도 남겨주고 싶다고 해서 시작된 저녁기도 덕분입니다. 기도문은 어렵지 않게 외웠지만 매일 피곤한 저녁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이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앉아서 기도하는 도중에도 묵주로 서로 장난을 치고, 피곤하다고 누워서 기도하는가 하면,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저녁이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부부에게 매우 어려운 숙제를 하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달래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성모님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청하며 가족기도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가족기도는 꼭 해야 하는 일과 중에 하나로 받아 들이고 체념 비슷한 의무감을 갖고 기도하려는 자세와 마음으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촛불을 밝히고 조용한 음악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즐기는 여유도 생겼으며 때로는 알렐루야로 힘찬 찬미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기도회때 돌아가면서 드리는 기도 지향은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서로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기회, 용서를 구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와 친척들을 위한 기도와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기도,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의 지향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아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넓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가족 기도는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의 관계도 아주 가까워짐을 아이들의 행동에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부가 저녁식사 후 잠깐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동생들을 불러 모아 제대 앞에서 고사리 같은 손에 묵주를 쥐고 가족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감격의 기쁜 눈물을 흘리며 성모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인가 큰 딸 아이가 눈물을 흘리시는 성모님 상본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훌쩍거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성모님께서 우시니까 자기도 눈물이 나서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시는 이유를 이야기 해주면서 네가 더 열심히 기도



성모님 메시지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고 항상 도와주신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한다면 성모님께서 매우 기뻐하실거라고 일러 주었더니 그 이후로 큰딸아이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부부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매일 미사 참례, 수요일과 금요일의 단식, 성서읽기 등을,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미사 갈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큰아들은 가톨릭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에 미사가 있어서 참례 할 수 있었고 잠이 든 아이는 잠이 든 채로 안고,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빵과 물로 단식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만 하기가 힘들 때에는 단식날 만든 사탕이나 쿠키,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먹지 않고 또 재미있는 만화영화 등을 보지 않는 것으로 희생을 바치면서 단식을 연습 시켰습니다. 큰아들의 단식날 점심은

한동안 맨 빵과 (v-8)이라는 야채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채즙을 이 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보다 영양가를 생각해서 택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 보다 빨리 점심 식사가 끝나면 옆 아이들의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꾸 먹고 싶어질까 봐 어느 때는 눈을 꼭 감고 있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단식을 잘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어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이면 어른들도 가끔은 단식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야 오죽하랴 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더 잘 해 주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젊은 열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과 미안함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15년 동안 쉬지 않고 가족기도를 하면서 성모님 메시지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고 항상 도와주신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성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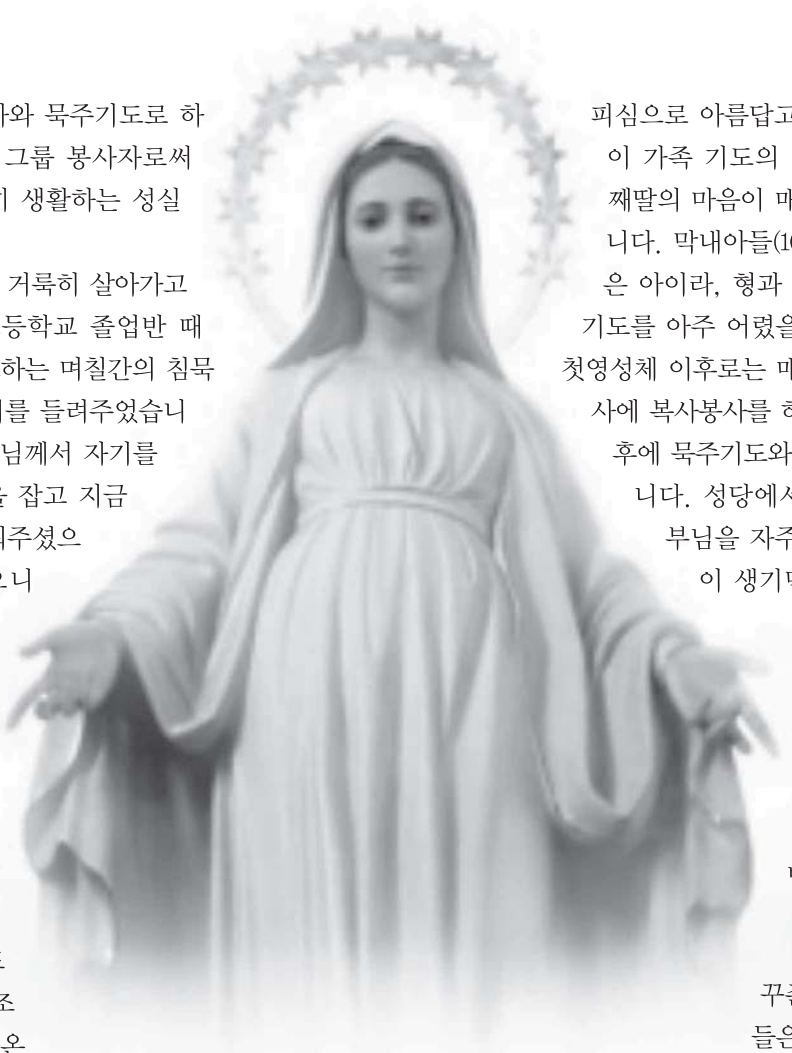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가족기도를 하면서 자란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갈 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큰 아들은 대

학을 졸업하고 새벽 미사와 묵주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영어성서그룹 봉사자로써 주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생활하는 성실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큰딸은 수도자의 삶을 거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 자신의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며칠간의 침묵 피정 중에 느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깊은 기도 중에 성모님께서 자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손을 잡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키워주셨으며 '이제는 많이 자랐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하시면서 잡고 계시던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떨리는 가슴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조금은 힘들었지만 계속해 온 가족 기도 덕분에 이 아이를 성모님께서 당신 품안에서 직접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고마운 확신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딸은 언니가 다녔던 고등학교 11학년입니다. 학교 생활이 엄격하고 힘들지만 하느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침묵과 기도와 매일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수도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순명과 겸손과 희생의 덕들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하느님께 완전한 봉헌을 준비하는 관상적이고 규율이 엄격한 성소자들을 위한 여자고등학교입니다. 며칠 전 전화로 내가 가족기도 하기가 힘들지 않았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지금 자기는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족기도를 해왔기에 지금은 자신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힘든 사춘기 시절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우심과 보살



피심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가족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둘째딸의 마음이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막내아들(10살)은 제가 늦둥이로 나온 아이라, 형과 누나들과 함께하는 가족 기도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첫영성체 이후로는 매일 오후 5시30분 저녁미사에 복사봉사를 하면서 미사 전 또는 미사 후에 묵주기도와 천주자비의 기도를 바칩니다. 성당에서 복사봉사를 하면서 신부님을 자주 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생기면 자주 고백성사를 함으로써 이 아이의 약점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하느님의 그늘 안에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하여 꾸준히 가족기도를 해온 분들은 모두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며 아이들도 참 신앙인으로 바르게 자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모님께서 원하셨던 가족기도의 열매이기에 저는 가족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낍니다. 가족기도는 성가정을 이루면서 가족 모두의 마음에 행복을 보장해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미리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천상의 보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이 위기의 시대에 천상의 성가정보험인 가족기도로써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한 성가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가치 있고 귀중한 선택이 아닐까요?

천주성삼과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M**

(기사를 보내주신 독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대우, 강프란시스, 권금옥, 권효경, 김건일, 김경희, 김마리아, 김마테라,
 김보경, 김빅토리아, 김소란, 김시몬, 김아네스, 김영숙, 김옥희, 김원희,
 김은옥, 김은현, 김절자, 김정연, 김주희, 김호영, 김효정, 남순자, 문경희,
 문방자, 민정숙, 민헤레나, 박병철, 박소피아, 박정자, 박청희, 박혜선, 반영섭,
 방영순, 백안셀모, 서애자, 성삼모, 송인성, 서정명, 성시용, 신베로니카, 신순덕,
 심세실리아, 심윤지, 심현미, 양유스티나, 엄충모, 오글로리아, 오수산나, 우송지,
 유베로니카, 이경희, 이계옥, 이비비안나, 이그레고리오, 이마리아, 이민경,
 이비비안나, 이송자, 이수지, 이순세, 이순자, 이승애, 이의정, 이인영, 이재순,
 이종천, 이준용, 이지희, 임주자, 임효경, 장귀분, 전진숙, 정영, 정옥순, 조원경,
 지니킴, 진도미니카, 진은필, 채덕규, 최덕희, 최테레사, 최미카엘라, 최상환,
 최정신, 최혜선, 한경숙, 한영옥, 홍옥선, 홍영숙, 홍제시카, 황계자, 황혜정

Unjung Petracca, Peter Shin, Jae Kang, Ki Ho, Choi, Yon Shin, Mary Lee, Tak U. Lee, Eileen K.
 Cho, Yoon Lee, Cynthia Ziggman, In Suk Mullins, Lee Jae K, Kum M. Butler, Marie Shalkey

- 지난호 부족금을 보내주신 익명의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 발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 주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월금	- \$ 2,701.91
일반 후원금	\$8,007.16
지난호 부족금 후원(익명)	\$2,701.91
후원금 합계 :	\$10,709.07
지출	
56호 소식지, 반송봉투, 통신비, 교통비, 발송비, 사무실 비품 및 운영비	\$13,826.60
이월금 (지난호 부족금)	\$2,701.91
총지출액	\$16,523.51
현재 부족금	- \$ 3,112.53



설터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오! 천상의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좋은 몫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니
 제 마음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제 몫으로 바라는 건 꼭 한 가지 있사오니, 당신의 것이 되기 소원이옵니다.
 영신의 기쁨 없어도 믿을 수 있사옵고, 누구의 위로 없어도 감내할 수 있나이다.
 쉼없이 제 자신을 멀리하겠으며,
 죽을 때까지 당신의 미천한 종으로 사욕 없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아멘" 만 하게 하소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Return Address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순례



순례지 : 발현산, 십자가산, 청십자가, 부활청동상, 평화의 오아시스 수도원,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공동체 체나콜로, 어머니 마을, 발현 목격증인들의 체험담, 메주고리에 특유의 음악과 찬미로 진행되는 본당의 은혜로운 저녁 예절인 묵주기도와 미사와 치유의 예절, 성시간, 십자가 경배, 성 야고버 성당의 연말 미사, 미리야나의 성모님발현에 참석

드브로브닉 : 아름다운 아드리아해의 성곽도시방문, 1700년전에 순교한 실바노 성인의 시신이 모셔진 성 브레이슬리 성당과 가톨릭 신앙의 유적지 방문

일 시 : 2011년 3월 27일 ~ 4월 4일 (9박10일)
JFK 공항 출발기준 (\$ 2,150)

순례단장 : 남그레고리오

문의처 : 610-366-9612 / 917-626-4314
E-mail : qpmm.org@gmail.com

PRSRT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